

도서(島嶼)지역 중학교 교사의 교직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순자(李 順 子)¹⁾ 김종봉(金 鍾 峰)²⁾

본 연구는 도서(島嶼)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의 삶과 문화, 교직활동, 그리고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를 그들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예 소재한 도서지역 중학교 한 곳을 참여관찰지로 선정하여 공동연구자가 약 10개월 동안 참여관찰하고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중학교 교사 12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교사들의 교실 안·밖 생활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교사들이 겪는 갈등과 제약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사의 도서지역 근무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덧붙여 교사들의 도서지역 교직생활에 대한 적응전략과 원리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도서(島嶼)지역, 중학교 교사, 교직생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맥락적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직생활을 영위하는 교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이 어떤 사회 문화적 환경과 맥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교육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주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지리적 여건 상 환경이 물리적 환경이 교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남다르게 느끼고 있다 하겠다. 그렇지만 이 지리적 특성은 또한 다른 육지지역 및 도시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의 교육적 현상과 관련이 깊다.

먼저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미를 살펴보면, “도서벽지라 함은 지리적, 경제적,

1) 여수대학교 교육학부 전임강사

2) 광양태금중학교 교사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 낙도, 수복지구, 접적지구 및 광산지구로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1967. 1. 16. 공포). 교육학 대사전에서는 도서의 개념으로서 자연적인 면에서 보면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인 섬을 뜻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물자가 궁핍하여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며,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①낮은 관념과 침체 ②미개한 인습 ③배타의식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첫째로 문화시설의 부족, 위생시설 및 관념의 결여 등을 열거할 수 있는 것이 도서지역의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용식(1969)은 도서·벽지는 지리적 조건의 불리, 문화적, 경제적 후진성 및 사회적 봉건성 때문에 거의 방치된 상태이므로 나날이 발전해 가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도서지역 사회개발에 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도서·벽지의 특수성에 대하여, 육지나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곳이고, 인구가 적고 직종도 많지 않고, 주로 제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곳이고, 문화가 정체상태에 빠져 있고 근대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며, 폐쇄적인 사회여서 외래 인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대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도서·벽지는 일반 육지와는 다른 특성들이 있다. 도서벽지 학교는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를 말하는데 그 특성들을 보면 지리적 조건이 나쁘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며 학교 규모와 시설이 불충분하며 교원의 사생활이 보장되기 어렵다(이용환, 1993). 또 윤철수(2003)에 의하면, 도서·벽지의 학교는 규모가 모두 영세하며 폐쇄된 환경과 교통의 불편 또는 문화적 이기들을 흡취하지 못하고 있기에 학습 환경의 악조건은 숙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서벽지 학교는 소규모학교라든가 단 급 또는 복식의 학급편성을 갖추게 되며 중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2개 교과 이상의 과목을 가르치는 경향이 많다. 또 통학구역에는 소수의 아동밖에 없어서 취학자가 적고 교사수도 적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사들의 생활이 불안정하며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하다.

이러한 여건이므로 우리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다. 즉 이곳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므로 자취생활에서 오는 외로움과 불편함, 상급학교 진학

과 관련된 자녀의 학업문제 등 여러 가지 삶의 애환을 이야기한다. 또 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부족,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 이촌 현상, 교사의 교수-학습 외의 업무의 과다 등을 이야기한다. 이외에도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서 한정된 교사들끼리 하루의 일과와 생활을 함께 해야 하는 등, 이들이 자주 화두로 꺼내는 이야기의 주제는 거의가 섬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연히 도서지역으로의 이동을 꺼려한다. 신경우(1995)에 의하면 교원의 순환근무와 관련하여 직할시에 속해 있지 않은 농촌지역 근무 교사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가 바로 ‘어디로 갈 것인가?’였는데, 위와 같은 도서·벽지의 특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도서벽지학교는 같은 조건하에서의 선택이라면 교사들의 다음 희망 근무지 목록에 올라오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인사정책에서 도서지역에로의 우수교사 흡인요인으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승진이나 전보시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산점 제도에도 승진을 염두에 두지 않는 교사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근무지 이동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다도해(多島海)로 둘러 싸여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타도에 비하여 도서지역학교 수를 유독 많이 안고 있다. 전국 도서지역 학교현황에서 전남의 도서지역 중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학교 수가 전국의 66%, 학급 수는 44%, 학생 수는 74%, 교원 수는 71%를 차지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000). 그러므로 순환근무지역에 속한 전남의 많은 교사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한 번 정도는 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순수하게 섬 근무를 지원해서 근무하려는 교사는 거의 없고 “어쩔 수 없이 승진을 위해서”라는 이유와 배경이 대다수이다. 또한 도서지역의 학교는 학교 수에 비해 학급수가 현저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남 도서지역 학교가 소규모로서 대부분의 학교가 6학급 이하이고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며 학생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도 5개교나 된다. 전남 전체 학교 현황 대비 도서지역 학교 수는 중학교 10.7%, 고등학교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중학교 3.6%, 고등학교 2.0%이고, 교원 수는 중학교 7.8%, 고등학교 3.8%를 차지하고 있다(전남통계연보, 2002. 4. 1. 현재). 이와 같이 학교 수에 비하여 학생 수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지역주민의 이촌 현상에 의한 것이며, 이는 도서벽지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서 학생수의

감소와 학교규모의 영세화를 가져온다. 학교규모의 영세화는 다시 학교시설 유지에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교육여건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곳 도서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일반 도서지역의 학생들이 받는 여러 가지 교육적 혜택을 똑같이 누릴 권한이 있다. 교사들은 주어진 자원과 한정된 시설 속에서 다양한 교육실천을 수행하면서 매우 복잡하고 또 역동적인 자기 직무를 수행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여 형성된 교사 개개인의 문화는 바로 교육의 실천이 되고 이것이 다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황기우, 1992) 교사행위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본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몸으로 느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애환과 갈등들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것이 교육활동과 교육현상에 갖는 그 의미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교직문화와 교사문화 그리고 교육현실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모두 대도시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김풍삼, 1992; 유재정, 1992; 황기우, 1992; 신경우, 1995; 고희일·이두휴, 1997) 도서·벽지의 교육현실을 반영한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지역의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교직생활을 참여관찰하고 이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도서지역 근무 교사들의 교직세계, 즉 그들의 삶과 문화를 그들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소외 시 되어온 도서지역 교육의 현 주소를 교사의 교직생활 관점에서 파악해 봄으로써, 교육기회의 균등화, 교원지원 정책제고, 교원 인사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도서지역 근무 교사들의 교직생활은 어떠한가?

1-1. 교사들의 하루 생활은 어떠한가?

1-2. 교사들은 교실 안·밖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이들이 느끼는 제약과 갈등은 무엇인가?

2. 교사들의 도서지역 근무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들의 적응전략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학교에서 문화 기술적 자료 수집을 사용한다는 것은 서술적인 수업 관찰과 수업 이외의 학교 생활에 대한 참여 관찰 그리고 교사·학생·행정가·학부모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용숙, 1989)

본 연구에서는 도서지역에 위치한 한 중학교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참여관찰과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12명의 교사들과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참여관찰과 면담을 병행한 이유는 면담을 통해서 얻는 언어적 표현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 현상을 규명하고 사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Deutscher, 1970)고 보기 때문이다. 면담과 참여관찰은 공동연구자가 참여관찰 학교의 현직교사로서 참여자 겸 연구자의 입장에서 실시하였다. 따라서 참여관찰과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교사들의 시각에서 이들의 일상생활과 경험, 그리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과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삶과 애환, 그리고 보람 등을 이해하고자 하였지만 공동연구자의 이러한 위치와 역할이 연구 자료수집과 해석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1. 참여관찰지의 선정 및 배경

본 연구의 실행을 위하여 우리는 2003년 3월에 전라남도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 공립 중학교인 파도중학교(가칭)를 연구 참여관찰지로 선정하였다. 이 곳은 연구당시 공동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던 곳으로서 이곳을 참여관찰지로 선택한 이유는 우선 연구자가 자연스런 참여 관찰을 통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연구주제를 실행해 가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곳을 참여관찰지로 선정할 때 따르는 어려움, 즉 참여관찰을 허락 받기가 쉽지 않은 점도 큰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참여관찰지의 최종 결정은 공동연구자가 이곳 파도중학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그리고 다른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요청을 하자 모두 승낙을 해 줌으로써 이루어졌다.

1) 참여관찰 학교의 사회 문화적 배경

파도중학교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N공립 중학교 분교장이다. 이 지역은 도서 지역으로 정기여행선이 하루에 2차례 다닌다.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섬은 주위에 약 5개의 섬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중 2개 섬에서 학생들이 통학 선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 또한 이 섬은 6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은 90% 이상이 고졸이하의 학력이다. 이곳 주민들의 어업은 대다수가 가두리 양식장 운영인데, 바닷물의 적조나 태풍에 의한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로 각 가정들은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바램은 크나 그에 맞갖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원서를 쓸 때와 같은 경우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학교에 오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나이든 노인들만이 가끔 동네에 보일 뿐이다. 이 섬에는 음식점이나 주점이 없고 가게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학교 바로 밑에 구멍가게 하나 있는 정도이다.

2) 참여관찰 학교의 시설 및 인적 구성

학교는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고 학교 뒤쪽으로는 바다가 위치해 있다. 학교의 건물은 2층짜리 본관 건물과 7개의 부속 건물로 되어있다. 본관 1층은 초등학교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은 중학교가 사용하고 있다. 본관 건물 뒤편에는 숙직실과 교장, 교감, 교사들의 관사 4동이 있으며, 창고2동 급식실 1동이 있다. 관사는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 그리고 행정실 직원, 통학선 직원들이 살고 있고 학교 밖 동네에 관사 3동이 더 있다. 운동장은 초등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체육시간과 중복되지 않게 학기 초에 시간표를 조절하여 편성하고 있다.

인적구성을 보면, 파도중학교의 총 학생 수는 2003학년도 03월 현재 40명이다. 학급 수는 각 학년 당 1학급 씩 3학급이고 학생 수는 학년 당 12명에서 15명이다. 파도중학교의 교직원인 교사9명, 교감1명 그리고 행정실 직원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부장교사는 없으며 학급담임은 3명이다. 그 중 남 교사가(교감 포함) 9명, 여교사는 1명이다. 연령별로

는 50대 교사가 3명, 40대교사가 5명, 30대 교사가 2명이다. 이 학교의 장인 교감은 대부분 승진 발령을 받아서 처음으로 부임해 오는 편이며 1년 정도 근무하고 전근을 가는 실정이다. 이 학교는 도서·벽지의 학교 중 다 급지 학교에 속하며, 이 곳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1년에 0.972점씩 승진 점수를 가산 받게 되어 있다. 승진 가산점 중 도서·벽지 점수는 6점(교육부 인정 2.00, 전라남도교육청 인정 4.00)이기 때문에 승진에 뜻을 둔 교사는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2.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

1) 참여관찰

본 연구에서 과도중학교를 참여 관찰한 기간은 2003년 3월 3일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 약 10개월이다.³⁾ 이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 교사들의 일상적인 교직생활을 참여관찰 하였고 퇴근이후에도 비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하여 관찰하였다. 공동연구자는 교사들의 수업을 포함한 학교생활에 대하여 관찰을 실시하면서, 참여와 관찰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객관적인 관찰 결과뿐 아니라 참여 경험으로부터 주관적으로 느낀 것까지도 자료로서 기록하였다.

교사들은 수업 이외의 대부분을 교무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곳에서 수업에 관한 내용이나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가기 때문에 공동연구자는 교무실에서의 교사활동과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직원회의, 직원연수 시간 등 공식적인 회의는 물론 교직원 야유회, 회식, 교직원 친목활동, 경조사 등 비공식적인 회합에도 참여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행위를 관찰하고 그들의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참여관찰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면담도 함께 곁들였다.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혹은 학교 급식실에서 그리고 교내·외에서 친목활동을 하는 도중 교사들이 일상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연구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그들의 행동, 화제에 대해서 경청하고 연구자의 의견도 제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이끌어 냈다. 연구자는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은 가능한 한 바로 기록 노트에 기록하였으며, 기록하기 어려울 때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면

3) 2003년 07월 28일부터 2003년 08월31일은 여름방학 관계로 연구자가 5주 동안은 참여관찰을 할 수 없었음.

담내용을 녹음했으며 때로는 주요한 사실만 메모했다가 그날그날 관찰 노트에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 면담

연구자는 참여관찰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비공식적인 면담으로 얻을 수 없거나 또는 특정 사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어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식면담을 이용하였다.

면담자는 참여관찰지인 파도중학교(가칭) 교사들 10명과 그 외 다른 도서지역 중학교 두 곳의 교사 각1명씩을 선정하여 면담하였다. 면담교사의 배경은 <표 1>과 같다.

면담은 2003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공동연구자가 면담교사와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P중의 교사들은 면담장소가 대부분 교무실이였다. 면담의 방식은 주로 연구자와의 개별면담이었으며, 회식과 같은 자리에서는 대화도중에 연구자가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여러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공식 면담은 교사들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보였다. 연구자는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면담자의 비밀 보장을 약속하자 모두 면담에 응해주었다. 구체적인 면담방식은 연구자의 경험과 관련 문헌을 참고로 연구주제에 적합하게 면담 기초질문을 작성한 다음 이것을 기준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을 하면서 보통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과정에서 때로는 연구자와 면담자가 친분도 있고 하여 농담도 하면서 자연스런 대화의 분위기 가운데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사용된 기초 질문 자료는 <표 2>와 같다.

<표 1> 면담자 인적사항

성명(가명)	성별	교육경력	도서지역근무년수 (면담당시)	거주형태	비고 (담당과목)
이교사	남	26	2	홀로 관사생활	P중(교감)
양교사	남	24	7	홀로 관사생활	P중(국어)
박교사	남	21	2	홀로 관사생활	P중(기술)
김교사	남	19	1	홀로 관사생활	P중(영어)
조교사	남	22	1	홀로 관사생활	P중(수학)
차교사	남	13	1	홀로 관사생활	P중(사회)
공교사	남	23	1	홀로 관사생활	P중(과학)
강교사	남	13	4	홀로 관사생활	P중(도덕)
최교사	남	11	2	가족과함께생활	P중(체육)
정교사	여	13	1	가족과함께생활	P중(음악)
송교사	남	15	4	가족과함께생활	M중(영어)
전교사	남	17	2	홀로 관사생활	Y중(도덕)

<표 2> 면담에 사용된 기초 질문 자료

영역	내용
일상생활	전임학교는 어디였습니까?
	현재 도서지역 근무연수는 몇 년입니까?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서지역에 오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도서지역에 생활하면서 느끼는 갈등, 어려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정, 직장, 수업 등).
인간관계	도서지역에 생활하면서 생기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방과 후의 시간은 주로 무엇을 하면서 보냅니까?
	도서지역에 생활하면서 변화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느낌 등은 어떻습니까?
	동료교사들과 생활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료교사들과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중 바람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성장	학생들과의 관계는 육지지역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교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도서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측면입니까?
	도서지역 학교생활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과 교육청 등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수-학습 방법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보람은 무엇입니까?

제보자와의 면담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되었으며 부족한 경우에는 2~3차에 걸쳐 지속적인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면담의 내용은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대부분 녹음하였고 이를 전사하였다.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담 도중에 관찰 노트에 기록하여 참여관찰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자료를 수집해 가면서 참여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며 주제에 따라 범주화하고 분류하며 면담항목에 추가하는 내용들을 추출하기도 하였다. 집중적인 분석은 자료수집이 다 끝난 후에 이루어졌는데, 1차로 참여 관찰한 내용을 읽고 정독하면서 각 연구문제와 관련된 하위 내용 영역들을 범주화하였다. 그런 다음 전사된 교사면담 자료도 반복해서 정독하면서 참여관찰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교사들의 생생한 표현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나타난 주제에 번호를 붙이고 중간분류와 대 분류 제목을 정하고 파일에 정리하였다. 나타난 주제들의 예를 들면, 교사들의 일상생활의 갈등과 불만, 적응전략들, 교사들의 핵심가치 등이다. 그리고 각 주제 하나하나를 다시 정독하면서 주제에 따라 참여관찰 내용과 면담내용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해당되는 번호를 적고 재분석하였다. 글쓰기 과정에서는 문서자료와 함께 분석된 자료들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추출하여 연구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도서지역 교사들의 교직생활

1) 교사의 하루 생활

과도중학교 교사들은 가족과 함께 정착하여 생활하거나 집에서 직장으로 일정 거리를 통근하는 것이 아닌 소위 ‘자취생활’을 한다. 생활하고 있는 관사가 학교 울타리 내에 있어 교사들은 오전 8시쯤이면 학교에 출근을 한다. 자취방에서는 컴퓨터나 신문 등 일반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므로 교사들은 학교에 오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 뉴스 등을 검색하고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 커피나 녹차를 마시기도 한다. 컴퓨터에서 메일을 검사하고 그 날 자신의 수업시간을 확인한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처리해 나간다. 통학선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오전 8시 10분경이면 학교에 도착하게 되므로 교사들은 조를 나누어서 이들의 등·하교 통학선 안전지도를 한다. 그리고 담임교사들은 바로 교실로 가서 자율학습을 입장지도를 한다. 그리고 수업시간 이외에는 담당 학급 학생들의 봉사활동 확인서 정리, 학급환경정리, 학생 면담 등의 활동을 한다.

교무 회의는 일주일에 1번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8시 50분부터 시작한다. 회의 시간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끝난다. 회의내용은 공문서의 전달과 학교행사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등이다. 그리고 교사 수가 적기 때문에 전달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교무실에서 전달하고 있다. 교무회의는 상명하달 식의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이며 교사들의 의견도 활발하게 전달되는 편이다.

1교시 수업은 9시 20분부터 시작한다. 교사들의 수업시간은 주당 평균 11시간 정도이고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 나머지 시간은 잡무처리 및 컴퓨터 원격연수 등으로 활용한다. 교사들은 그 외, 학습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그래픽이나, 프리젠테이션을 배우기도 하고 컴퓨터 자격증을 따기 위한 준비를 하기도 한다.

점심시간에는 살림하는 교사 한, 두 명을 제외하고는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는다. 점심 시간은 4교시가 끝나는 12시 40분부터 시작되어 2시까지이다. 교사들은 자취생활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한 끼라도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밥을 먹고 싶어 한다. 그래서 관사가 가까워도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는다. 교사들도 학생들과 함께 오는 순서대로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식사를 한다. 교사들의 식탁은 따로 지정된 것은 없고 학생들과 함께 먹기도 하나 교사들끼리 같은 식탁에 모여 식사를 할 때가 많다. 식사를 하면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식사하는 습관이나 행동에 대해 관찰하며, 편식하지 않도록 밥이나 반찬을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 지도하기도 한다.

점심을 먹고 나서 쉬는 시간에는 교사들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연습을 하거나 컴퓨터 바둑을 두기도 하고 커피나 녹차를 마시며 음악을 듣기도 한다. 또 어떤 교사는 교무실의 자신의 자리에 있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며 낮잠을 자기도 한다.

오후 3시 40분 6교시가 끝나면 청소를 하는 시간이다. 청소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

도 이루어진다.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학생들의 구역에 가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안 되었으면 그 학생을 불러서 다시 하라고 지시하기도 한다. 오후 4시부터 6 시까지는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학습을 한다. 이 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 담임교사들의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이렇게 6시까지 공식적인 하루일과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육지에서와는 달리 출·퇴근하는 일이 없고 관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후 퇴근 시간과 근무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다.

2) 교실 안⁴⁾ 이야기

교실 안의 수업형태는 어느 학교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학급 당 학생의 수와 학업의 태도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수업 및 업무와 관련지어 도서·벽지 학교의 특성에서 오는 교사들의 주된 이야기 주제를 중심으로 교실 안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도서·벽지 지역 교사들이 수업에 대해 갖는 부담은 도시의 큰 학교에서보다는 비교적 적다고 이야기 한다. 수업시수를 보면 도시 지역에서 하루에 보통 3~4시간씩 수업을 하다가 이곳에서는 1~2시간의 수업을 하게 되므로 수업에 대해서는 여유를 갖고 생활한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한 과목에 한 학년만 가르쳤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학년에 두, 세 과목의 교과를 맡고 있는 고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학급수가 많은 도시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전입 해온 교사들은 처음에는 수업시간이 적은 것에 대해 신기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학년을 맡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까지 맡아야 한다는 부담도 느끼고 있고 수업준비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의 학교에서는 1시간 수업 준비를 하면 8, 9시간을 수업을 할 수 있으나, 이곳 도서·벽지 학교에서는 1시간 수업 준비를 하면 1시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 전공과목 이외의 다른 과목을 맡고 있는 교사들은 생소한 과목에다 학생들에게 쉽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더욱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여기서 연구자는 '교실'이라는 의미를 공간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교사의 주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의미로서 '교실 안'과 '교실 밖'을 구분 짓고자 한다.

또한 도시지역의 큰 학교에서는 학기 초가 되면 서점에서 교사용 참고서를 갖다 주는 데 비하여 도서지역에서는 학급의 규모도 적고 학생 수도 소수인데다 섬 지역인 관계로 출판사나 서점에서 참고서를 쉽게 보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인 전공이외의 다른 과목을 맡고 있는 교사들은 도시에서 전에 같이 근무했던 교사들에게 부탁하거나 서점에 직접 연락해서 참고서를 구하여 활용한다. 교재를 구입할 때에도 직접 구입처에 가서 보고 골라야 하는 것도 있는데 섬 지역이다 보니 원하는 교재가 오지 않아서 속상해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전공이외의 두, 세 과목을 담당하게 되고 교재와 참고도서를 구하는데서 오는 어려움과 관련된 면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교사 : 전임학교에서 일주일에 20시간씩 하다가 여기서 9시간을 하니 헐 일이 없구마. 그런데 도시학교에서는 한번 교재 연구를 하면 여러 번 써먹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하니 교재 연구하기 바쁘구마.

(2003. 3. 18. 교무실 참여관찰 중에서)

정교사 :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구를 기안해서 살 때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사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전화로 주문을 했더니 내가 원하는 것이 온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와서 속상하다니까요. 반품을 하려면 복잡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003. 4. 25. 개별면담 중에서)

둘째, 수업에서 학급 학생의 수가 미치는 영향과 학생의 학업태도 등의 측면이다. 수업할 때 한 반의 학생수가 몇 명이나에 따라 수업의 분위기와 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 수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과목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과목에서는 학생수가 적어서 좋은 점이 많다고 했으나 체육과목은 수업에 지장을 준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체육 같은 경우에는 축구나 배구와 같은 종목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하였다.

#2

강교사 : 도시에서는 토론형 수업을 실시하기가 어려웠는데 12명 정도 되니까 토론수업을 하기가 안성맞춤이구만. 애들이 과제만 제대로 해오면 토론이 잘 되겠는데 애들이 발표를 안 해서 토론수업이 잘 안된다니까.

최교사 : ... 학생 12명인데 여학생이 9명이고 남학생이 3명이어서 수업이 제대로 안된다니까. 축구를 한번 할 수가 있나, 농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나. 한 달에 한번

이라도 1,2,3학년 합반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2003. 5. 13. 교무실 참여관찰 중에서)

수행평가에서도 교사들은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다. 학생수가 적다보니 발표를 하는 학생은 언제나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전혀 학습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교사들은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애를 먹는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때로는 사정을 하기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벌을 준다고 하기도 하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사례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양교사 :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가서 사정을 해도 과제를 내지 않고 있어요. 점수를 준다고 내라고 사정을 해도 내지 않으니 이것 참 거꾸로 되었다니까요. 학생이 와서 사정을 해야 되는데 교사가 사정을 하고 있으니 말이여. 가서 내일까지 꼭 내야 한다고 말을 해도 과제를 가져오지 않으니 골치가 아프구만요. 통 점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다니까요.

(2003. 5. 13. 교무실 참여관찰 중에서)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몇 명되지 않고 신문도 보는 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를 이용한 과제를 낼 때는 모둠 별로 컴퓨터 가진 학생들을 속하게 하여 모둠 과제로 내어서 발표를 하게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습능력이 뒤떨어진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얻는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전혀 발표를 하지 않던 학생이 손을 들어 발표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양교사 : 여기 있는 애들 중에는 읽고 쓰는 것이 서툴거나 못하는 학생들이 한 두 명은 꼭 있는데 그런 애들을 아침에 불러서 가르쳐서 6개월 정도 했더니 이젠 읽는 것은 제법 한다니까 정말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김교사 : 철저한 개별학습이 가능하므로 학습부진아에 대한 수준별 지도가 가능해 학생들이 학습에 재미를 느끼며 모든 학생들이 교루 발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수업이 활기차고 원기 왕성할 때 수업에 보람을 느낍니다.

(2003. 9. 23. 개별면담 중에서)

셋째, 수업관련 교사의 업무 측면이다. 교사들은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데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모든 교사들

이 전 학년을 가르치고 있으며, 두 과목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보통 3개에서 6개까지 시험문제를 출제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시간표가 발표되면 교사들은 이러한 시험문제 출제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시험문제 출제에 보낸다. 그래도 문제 유형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제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어 시험문제 제출 기한을 넘겨서 제출하는 교사도 많다. 따라서 평가를 맡은 교사는 시험보기 한 달 전부터 시험날짜를 고지하고 시험문제 출제를 독려하고 있다. 평가는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교사들이 신중을 기하여 출제하며 난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한다. 난이도에 따라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곳에 부임한 교사들은 첫 번째 시험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의 점수가 낮게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더 쉽게 출제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특히 컴퓨터 사용에 서툴고 타자속도가 느린 50대 이상의 교사들은 애로사항이 많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내용 관찰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5

박교사 : 나는 시험문제 출제 때마다 미치겠네. 기술, 가정 1,2,3학년에다 미술 1,2,3학년 이렇게 여섯 개를 출제해야 하니 죽겠당께. 컴퓨터 타자치는 속도도 느리고 눈이 나빠서 돋보기를 쓰다 보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눈이 피로해서 쉬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1개월 전부터 시험 문제를 출제해도 내가 제일 늦게 제출한다니까.

조교사 : 나도 전입학교에서는 한 과목 한 학년 것만 출제를 했는데 1,2,3학년 모두를 출제할려니까 힘들구만요. 출제원안 제출 일은 다가오지 출제 진도는 안나가지 힘들그만 힘들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정성이 떨어진다니까요. 아직도 한 개가 남았는데 큰일이네 밤새워야 되겠그만.

(2003. 7. 2. 교무실 참여관찰 중에서)

반면, 컴퓨터에 익숙한 교사들은 컴퓨터의 정보를 즐기고 또 사이버연수 등을 활용하여 연수 점수관리와 자기 성장을 도모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곳 도서지역에서도 교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컴퓨터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그러나 컴퓨터라는 기계가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 컴퓨터가 도입되면서부터는 교사들 간의 대화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특별한 경우

가 아니면 대부분 컴퓨터로 보내는 시간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보다 많다. 교직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이런 컴퓨터 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대화 단절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이 곳은 신문도 하루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그 날의 뉴스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특별한 뉴스가 있는 날이면 인터넷에서 먼저 정보를 접한 교사가 교무실에 알려 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면담내용 관찰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6

양교사 : 위메 옛날에는 학교에 오면 서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느라고 교무실이 시끌벅적 했는디, 요새는 교무실이 쉼 죽은 듯이 조용하니 재미가 하나도 없구마이. 저놈의 컴퓨터가 범인이랑께. 저놈의 기계가 뿔이간디 사람들을 요로코롬 변하게 해쁘러 당가이. 어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해보고 그려바 줘. ...

정교사 : 요즘에는 교무실이 너무 조용하여 전화할 때도 조심이 된다니까요. 행여나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스럽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연구를 그렇게 하고들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2003. 4. 17. 교무실 참여관찰 중에서)

교사들은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할 일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컴퓨터의 폐해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정전이나 고장으로 컴퓨터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교무실의 대화가 활발해지거나 많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만큼 컴퓨터와 교사들의 삶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교사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다음 면담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7

김교사 :정전이 돼버리니까 원시시대로 돌아 가버린 것 같구마. 할일이 없네 할일이 없어. 공문서 작성을 할 수가 있나, 원격연수를 받을 수가 있나, 학생들 학습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나. 답답하구마 답답해.

(2003. 6. 10. 교무실 참여관찰 중에서)

위와 같이 사회·문화적으로 낙후된 도서지역에서 문명의 침단을 연결해 주고 경험하게 하는 컴퓨터는 교사들에게 더욱더 상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 파도중학교 교사들이 수업 및 업무와 관련되어 이야기한 주제들을 요약해 보면,

본인 전공이외의 다른 과목들을 두, 세 개 맡는데서 오는 수업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시험문제 출제의 어려움, 교재나 참고서들을 쉽게 구하기 어렵다는 점, 노력과 기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의 낮은 학습의욕과 과제 불이행으로 인한 수행평가의 어려움,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등이다. 교사들은 근무지를 이동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이전 근무지와 다른 근무여건과 여러 가지 교수·학습 상황들 비교해서 이야기하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곳 도서·벽지지역 교사들이 수업 및 업무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주제들은 대부분 도서·벽지 학교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교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 가면서 보다 나은 교직의 여건과 교직에서의 보람과 그 의미를 찾아가는 하나의 몸짓이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교실 밖 이야기

교사의 교실 밖 이야기는 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의 교육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이외의 생활, 퇴근 후의 생활, 그리고 날씨와 연결된 생활이다. 집과 근무지를 오가며 출, 퇴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이곳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퇴근 후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있으므로 이들이 퇴근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날씨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이들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업무 이외의 생활

교사 업무 이외의 생활로 대표적인 것은 교직원 친목회를 들 수 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교직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친목회를 운영하고 있다. 파도중학교의 친목회 회장은 명예직으로 교감이 맡고 있고 교사들 중에서 간사를 뽑아 친목회를 운영한다. 간사는 친목회의 모든 부분을 운영하며 학교에서 교원들에게 일어나는 경·조사 챙기기, 운동, 음식 등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므로 친목회 운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간사는 일주일에 한번 있는 친목회 때 운동종목을 정하고, 팀을 나누며 운동이 끝나면 함께 담소하며 먹을 음식과 음료를 준비한다. 교사

들 거의가 가족을 떠나 홀로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친목 일에 음식 먹는 즐거움을 자연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교사들은 친목회 날 아침에 간사에게 오늘 준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기도 하며, 먹고 싶은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음식점이나 주점이 없는 관계로 간사는 몇 일전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여 미리 사가지고 들어와서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육지지역의 식당이나 정육점에 전화로 부탁을 하여 도선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그것을 배 시간에 맞춰서 받아와야 한다. 이와 같은 음식 조달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부담을 갖게 되어 교사들 대부분은 친목회 간사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그러나 교직원 모두가 원하게 되면 또 그 짐을 기꺼이 질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간사의 임기는 보통 1년이다.

이친목회는 보통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에 학생들의 수업이 끝난 후 오후 4시부터 시작한다. 친목 일에 하는 것은 보통 배구경기이다. 배구는 팀 수가 정해져 있어 한 두 명이라도 빠지면 운동이 안 되므로 운동에 취미가 있건 없건 모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은 불문율로 되어 있다. 운동에 그다지 취미가 없는 여교사나 경력이 많은 남교사들은 별로 내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참여 할 수밖에 없는 애로를 토로하기도 한다. 두 편으로 나누어 배구를 하고, 이긴 팀은 상품으로 내걸었던 일상 물품, 예를 들면 치약이나 비누와 같은 것을 가져간다. 운동이 끝나고 준비해 두었던 음식을 나눠 먹는다. 이때 먹는 음식은 보통 삼겹살이나, 통닭, 족발 등이다. 배구경기에서 졌던지 이겼던지 교사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통 자취생활로 찌든 생활에 활력을 갖기도 한다.

공식적인 친목회 배구 시합은 보통 5시 전후로 끝나나 때로는 시간을 연장해서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학교 주변의 가게로 자리를 옮겨 맥주나 소주를 먹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그동안 못 다 했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고 섬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며 친목을 다져 나가기도 한다.

(2) 퇴근 후의 생활

첫째, 혼자 생활하는 경우이다.

오후 6시가 넘으면 교사들은 각자의 취미생활과 운동 및 개인 생활을 보낸다. 육지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퇴근 후에 가정에 가서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지만 여기

서는 자취하는 교사들이 다수이므로 육지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과는 다른 생활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활동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퇴근 후의 생활에도 서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 교사들은 운동을 하거나, 낚시, 산책, 독서, 음주 등을 하며 보낸다. 경력이 많은 교사들에 의하면 전에는 섬 학교에서는 방과 후에 화투와 같은 노름을 하는 교사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였지만 이곳에서는 노름이나 화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교사들은 노름보다는 낚시나 운동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운동 후에 술을 마시기도 한다. 특히 교사들은 비 오는 날은 취미활동과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하고 이런 날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는다. 술자리는 보통 학교 바로 앞에 구멍가게에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는 맥주와 소주를 마신다. 안주는 대개 새우깡이나 김 같은 간단한 것을 안주로 삼고, 가끔씩 가게 아주머니가 통조림 같은 안주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다음은 자연스런 상황에서 연구자가 관찰한 내용이다.

#8

차교사 : 어이 김선생 오늘 한잔 어떤가? 집에 가봤자 마누라가 있나 자식새끼가 반겨주기를 허나, 밥 먹고 있으면 눈만 멀뚱멀뚱 뜨고 벽만 바라보고 있으니 나 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겠구마 죽겠어. 우리 가게 집 가서 한잔하세 그려.

김교사 : 어제 과음을 했더니 속이 아직도 얼얼 하구마. 오늘은 그냥 쉬지요. 해장국 끓여줄 마누라도 없는데...

최교사 : 나는 일찍 저녁 먹고 낚시나 가야것구마, 가봤자 고기는 안 물어도 집에 있으면 시간이 가야제. 곰팡이 냄새나는 방구석에 있기는 싫고.....

강교사 : 나는 운동장이나 돌아야것구만. 땀이라도 빼야제 저녁에 잠이 잘 오제. 요새 며칠 운동을 안했더니 아랫배가 나와서 큰일이구마. 요러다가 마누라한테 쫓겨나것당께.

(2003. 6. 3. 교무실 참여관찰 중에서)

교사들은 이렇듯 섬에서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는 경우는 자신들의 취미에 따라 신앙 생활, 인터넷 바둑 두기, 난 가꾸기, 달리기, 산책, 낚시, 술 마시기 등으로 퇴근 후의 시간을 보낸다.

둘째,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이다.

과도중학교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교사는 초등학교 1, 2학년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정교사, 그리고 부인과 초등학교 2, 3학년인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최교사가 있다. 정교사는 A지역에서 처음으로 B지역으로 전입해 왔으며, 육지지역 학교에 자리가

나지 않아 이곳으로 온 여교사이다. 정교사의 남편은 직장문제로 도시에서 따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학교문제로 정 교사가 데리고 와서 이곳 초등학교에 전학시켜 같이 생활하고 있다. 정 교사는 섬 지역이 처음이라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이곳을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한다고 했으며, 도시에서는 해보지 못한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과 산책을 나가곤 하였다. 바닷가에 가서 미역을 따오기도 하고 아이들과 조개껍데기를 주어 오기도 하면서 생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곳을 낯설어하며 힘들어했고 방과 후에는 갈 곳도 마땅히 없고 부식가게나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답답해했다.

그렇지만 최소한 1년은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적응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하고 이곳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관사 옆 공터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채소를 가꾸면서 시간을 활용한다. 대부분의 관심은 아이들의 건강문제, 관사 시설물의 불편함 호소, 퇴근 후의 시간활용하기의 문제이며 A지역에서 시작했던 풍물놀이를 계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한다.

최 교사는 도서지역 생활 2년째이다. 가족전체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많아도 그럭저럭 적응 해 왔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부식가게가 없어 아이들의 반찬이나 간식을 제대로 못 해준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2주일에 한번씩 육지지역에 나가서 부식을 한꺼번에 사와 냉장고에 저장해 놓고 먹기는 하지만 싱싱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아쉽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직접 교사의 표현을 들어보면,

#9

최교사 : 일주일 분량의 부식을 사 가지고 배낭에 메고 언덕을 올라오면 어깨가 빠져버릴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올라와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몇 일 지나면 싱싱하지도 않고 어깨가 아플 정도로 메고 와도 아이들에게는 먹이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정말 성질이 난다니깐요. 부식 가게라도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003. 6. 26. 교내 참여관찰 중에서)

그래도 1년만 생활하면 육지지역 학교로 나간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생활한다고 최고사는 이야기한다. 자취하던 교사들이 섬을 떠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낚시를 하거나 학교 뒤편의 공터에 밭을 일궈서 소일하고 있다. 채소는 대부분 상추와 무, 배추, 고추 등을 심어 반찬을 만들어 먹지만 섬 지역 이어서 바람이 불면 거의 먹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는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10

최교사 : 어제 보니까 호박이 예쁘게 열어서 내일 따서 반찬 해먹어야지 하고 생각했더니 밤새 바람 불어서 호박을 닝쿨째 쓸어가 버렸네. 그럴 줄 알았으면 어제 따서 반찬 해 먹을 건데... 허망하구만 허망해.

(2003. 7. 22. 교내 참여관찰 중에서)

이와 같이 이곳에서 혼자 자취생활 하는 교사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운동이나 술좌석을 자주 갖는 반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는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걱정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3) 일기예보와 생활

교사들은 날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오늘 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으려나?”하고 걱정부터 하기 시작한다. 실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모든 여객선이 출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토요일에도 육지의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폭풍주의보나 경보가 발효되면 교사들은 그야말로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그대로 받게 되고 이럴 때는 교사들 간 더욱 대화가 없어진다. 이런 날은 퇴근 후에 몇몇 교사들끼리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면담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1

조교사 : 뭐 바람이 이런데야. 아까는 날씨가 좋던데 큰일이네. 오후에 배가 뜰란가 모르겠네.

박교사 : ... 오늘 태풍주의보 때문에 도선이 출항하지 못한단디 어찌까? 큰일 났구마 오늘은 집에 제사가 있어서 나갔다 와야 하는데, 사선이라도 알아봐야 겠구마. 사선이 있을랑가 모르겠구마이.

(2003. 6. 27. 교무실 참여관찰 중에서)

그나마 30, 40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섬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다. 멀리 떨어진 섬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조를 나누어 2주에 한번씩 집에

가게 되는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여객선이 출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육지의 집에 가지도 못하고 혹 전날 섬을 떠났다면 다시 학교로 올 수 없다. 그러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한 조가 집에 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나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주말이 가까워지면 교사들은 일기예보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되고 동료 간의 관계에서 긴장감마저 들기도 한다. 다음의 면담 사례는 이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2

송교사: 여기서 생활하는 교사들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격주로 나가는 것이 섬에서 겪는 가장 큰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나마 나가야 할 조에 주의보가 내려서 배가 다니지 못할 경우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말 할 수 없을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그로 인한 직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고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기도 하죠... 특히 육지에 있는 집에 나가고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사소한 감정의 불씨가 쌓여서 술좌석이나 기타, 다른 일과 연관되어서 크게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3. 8. 13. 개별면담 중에서)

그래서 자신들이 집에 다녀 올 조에 해당되면 자연스럽게 일기예보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고 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집에 가지 못했을 때의 스트레스는 다른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은 누구보다 그 날 그 날의 ‘일기예보에 민감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교직생활의 갈등 그리고 제약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쁘고 즐거울 때 보다는 힘들고 갈등과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남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된다. 앞에서 교사들의 교실 안·밖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서 지역 교사들의 교직생활을 살펴보았으나 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것에 갈등과 불만이 많은지 좀 더 들여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곳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도서·벽지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상 교직생활에서 느끼고 표출하는 갈등과 제약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겉도는 듯한 교사-학생과의 관계

도서지역 학생들은 가정에서 학습에 도움을 주거나 지도해 줄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므로 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 대체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낮고 과제해결 능력이 뒤떨어진다. 이곳으로 발령 받아서 오는 교사들은 처음에는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학생들에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1학기 정도 지나면 점점 학생들에게 실망과 한계를 느낀다고 말한다. 학생 수는 도시보다 적지만 학생들의 생각의 폭이 좁고 의외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도시 학생들은 학원이라도 다니게 되므로 그나마 기초를 쌓기도 하지만 섬에서는 전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정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때로는 수업에 짜증이 날 때도 있다고 토로한다.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개별적인 질문을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고 이야기한다. 학생들은 예습이나 복습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1학기가 지나면 점점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수방법을 강구하여 수업에 임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13

차교사 : 처음으로 학급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12명이어서 이것이 바로 선진형 학급이구나 하고 느꼈는데 수업을 하다가 보니 애들이 전혀 따라오지를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니까. 질문을 해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발표를 하라고 해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김교사 : 학생들이 한눈에 들어와서 수업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막상 수업을 해보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애들이 숙제를 안해 와서 본문을 못 읽어요. 기본적인 단어의 뜻도 모르니 깜깜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어를 외어 오라해서 안 외어 오면 단어 하나에 손바닥 한 대씩 때린다니니까요. 때려서라도 시켜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속상하니까.

(2003. 3. 20. 개별면담 중에서)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현재까지 정착된 학력수준이나 순위를 서로가 인정하고 있어서 학력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심이나 성취 욕구를 유발시키기 어렵다고도 교사들은 이야기한다. 특히 학생들은 학급에서 이미 석차가 정해져 있어서 그 석차이면 자신이 어느 학교에 갈 수 있고 어느 학교는 가지 못한다는 것을 대략 예상하고 있다. 더 노

력하지 않아도 예상된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에 학습에 대한 열의나 흥미가 별로 없고 동료간의 경쟁심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생각하는 몇 명을 제외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결정한 학생들은 학교의 학과 공부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수업시간에도 집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다음 몇 사례에서 볼 수 있다.

14

차교사 : 미순이는 머리가 괜찮은 편인데 아버지가 상고에 가라고 했다고 공부를 안 해버린다고요. 어디학교에 진학하던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알아듣게 얘기해도 전혀 먹혀들지를 않아요. (중략) ... 수행평가 과제를 내주어도 전혀 하지 않아요. 도시에서는 수행평가 과제를 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오는데 안되면 어머니가 해주어서라도 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애들은 공부를 할려는 마음이 없다니깐요.

이교사 : ... 우리 학생들이 걸으로는 활발한 것 같은데 수업에 들어가 보면 그런게 아니라니까 내가 다른 섬에서도 근무해 왔는데도 우리 애들같이 발표를 안 하는 애들은 처음 봤어. 전혀 발표를 안 해버린다니까.

조교사 : 여기 와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도 내신제로하지 않고 시험 봐서 진학을 한다면 B고나 C고도 가기가 힘들겠어요. 시내의 학생들에 비한다면 중위권에 속하기도 힘들겠더라고요. 그나마 내신으로 하니까 한, 두 명 정도는 시내의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에 진학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요.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보면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2003. 3. 20. 교무실 참여관찰 중에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보람의 원천이 되어야 할 교사-학생의 관계가 학생들의 낮은 학습의욕과 학생들의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현실적인 여건, 그리고 부모의 교육적 지원의 미비 등으로 밀착되지 못하고 겉도는 듯한 관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섬에서의 교직생활에 대한 애환의 굴레가 되어 자꾸 반복되는 갈등현상으로 보여 진다.

(2) 자녀교육에 관한 고민 및 사회적 인간관계의 소원함

교사들은 도서지역에 오게 될 때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오므로 도서·벽지 지역의 일상생활에 적응하려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실제 섬생활에 부딪치게 되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

오는 교사들의 연령이 대부분 40대 이상이어서 이들의 자녀들이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인 단계에 있는데 가장이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함으로써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자녀 교육의 문제가 핵심적인 고민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성장이나 교육면에서 도움이 꼭 필요할 때 그것을 제때에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상 고민하는 모습을 다음 사례에서 볼 수가 있다.

#15

양교사 : 아이가 고3인데 오늘 가서 옆에서 지켜줘야 하느니 이렇게 바람이 불어 배가 안뜨니 미치겠구나. 수능시험이 끝나고 이젠 논술 준비를 하는데 내가 옆에서 좀 봐줘야 하는데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때에 내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었으니 환장하겠구나. 참말로 여기는 완전히 감옥이여, 큰일이구마이 큰일이여. 어디 사선이라도 알아봐야겠구만.

김교사 : 나는 아이가 중3인데 사춘기가 와서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고 성적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내가 곁에서 상담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큰 걱정이라니까요.

(2003. 11. 20. 교무실 참여관찰 중에서)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3이나 고3의 자녀를 둔 교사들은 토요일이 아니어도 가족들에게 다녀 올 때가 가끔 있다. 그러기에 교사들은 일기예보나 날씨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도선이 출항을 하지 않으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낚시 배를 불러서 나가기도 한다. 그런 방법이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 섬에 와서 생활하는 교사의 경우도 자녀의 교육문제 고민은 마찬가지이다. 최교사는 휴일에 모임 가서 친구들의 자녀들은 영어학원이나 수학 및 피아노 학원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피력했다. 부모입장에서 자녀들을 학원이라도 다니게 해야 마음이 편안한데 섬 지역에서 교육환경도 열악한 형편에다 학원에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도시 학교로 전학을 갔을 때 자녀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은근히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섬에 와서 생활하다보면 교사들은 친구들도 멀어지고 계모임이나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소외되어 간다고 말들을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승진도 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멀어지면 어찌하나 하는 불안감을 토로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리고 홀로 이

곳에 와서 생활하는 남교사들은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유지에서의 고충도 이야기한다. 이에 대한 면담사례를 들어보면,

16

최교사 : 내가 섬 생활 2년에 친구들 다 떠나고 인자 모임에서 친구들이 아예 전화도 안 한 당께요. 어쩔 땐 섬에 살아서 이해해 준갑다 하고 생각하다가도 나 혼자 왕따 당했다는 생각과 내가 뭐 헐라고 이곳까지 와서 고생을 하나 하고 생각한다니까요.

차교사 : 나는 집에 나가는 날에 맞춰서 친구들이 모임을 하기 때문에 모처럼 집에 가는 날 친구들과 술 한 잔씩 하고 가면 마누라나 아이들이 눈치를 하고 마누라는 방문도 안 열어 준다니까요. 모처럼 집에 가서도 대접도 못 받고 올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집에 갈 때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섬에서 못나간다고 해버리고 살짝 집에 다녀 올 때가 많아요.

(2003. 6. 24. 집단면담 중에서)

사람의 행복의 의미와 기준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고, 행동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조용환, 1995), 교사들의 이러한 가족 및 친지들과의 소원함에서 오는 느낌들은 교직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적응해 가야 할 처지이기도 하다.

(3) 주거 및 문화시설의 미비로 겪는 어려움

도시지역으로 전근 온 교사들은 처음에는 바닷가에 가서 조개도 캐고 산책도 하면서 즐거워한다. 그러나 한 두 달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특히 도시의 생활에 익숙해진 여교사들은 "여기는 감옥이라니까, 들어오면 감옥이야. 갈 데도 없고." 라고 말하며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관사 시설은 낡아서 비가 올 때면 빗물이 벽으로 스며들고 여름이면 곰팡이와 습기 때문에 애를 먹는다. 이러한 불편함은 예산상의 이유로 바로 시정이 되지 않아 다음 사례에서 보는 교사들의 불평과 불만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17

최교사 : 위메 어제는 화장실에 비가 새서 우산을 쓰고 불일을 봤당께. 관사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어.

(2003. 6. 17. 교무실 참여관찰 중에서)

최교사 : 이층 관사가 아침에는 괜찮지만 오후부터는 옥상이 열을 받아 가지고 더워서 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날씨는 덥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하지만 돈이 있어도 사줄 데가 있어야지요. 아이들이 땀만 뻘뻘 흘리고 있어서 냉동실의 얼음에 설탕을 타서 주었다니까요.

(2003. 7. 4. 교내 참여관찰 중에서)

최교사 : 아이고 참 성질나서……. 저번에 세면대를 신청했는데 세면대는 안 해주고 멀쩡한 썩크대를 해준다니 미치고 뽕뽕뛰겠네, 그것도 우리는 안 해주고 아무 이상이 없는 다른 곳을 해 준다니 성질이 안 나겠어? 우리 집 세면대는 밑에서 세고 해서 아이들이 세수할 때마다 옷을 버리고 해서 속상해 죽겠는디…….

(2003. 9. 24. 교내 참여관찰 중에서)

도서지역의 대부분은 식수에 염분이 많아 처음으로 전근 온 교사들과 가족들은 배탈에 시달린다. 식수가 몸에 맞지 않아서 아이들이 배탈이 나면 섬 지역 생활이 점점 불안해진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정수기를 설치하여 그 물을 먹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18

정교사 : 어제저녁 애들이 배탈이 나서 혼났어요. 설사와 토하기를 여러 번 하는데 배가 없어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아침까지 발만 동동 구르다가 칫배로 나가서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고 하더군요. 어린것이 섬에까지 와서 아파 가지고 병원에도 제때 가지 못하니 내가 죄책감까지 든다니까요.

(2003. 3. 11. 교무실 참여관찰 중에서)

그리고 바닷가 지역은 지네가 많아서 섬 지역에 생활하는 많은 교사들이 자다가 지네에 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교사들은 지네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교사 같은 경우도 방에 지네가 나와서 아이들이 지네에 물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19

정교사 : 어제 저녁 방에서 지네가 나와서 정신이 나간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크던지 살기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나 물리면 어떡하겠어요. 지네가 나온다고 해서 설마 했는데 걱정이네요.

(2003. 3. 21. 교내 참여관찰 중에서)

이곳에 가족과 함께 와서 지내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교사들은 퇴근 후 시간을 적절히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씁쓸함을 느낀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표출한다.

20

양교사 : 육지에서는 다양하게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을 활용할 문화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 한 두 달은 섬이라는 환상에 젖어 생활하는데 그 이후에는 불편함과 고립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니까요.
(2003. 6. 26. 교내 참여관찰 중에서)

이와 같이 불편하고 고립된 생활에서 가정이 그리운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주말이면 가족들이 있는 육지의 집에 가는 것이 이들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생활의 희망이고 낙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사의 도서지역 근무의 구심점: 승진과 가산점수

1) 승진을 위한 행진

파도중학교는 도서지역의 '다'급지에 해당된다.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뒤쳐져 있고 낙후된 이곳에 근무하기 위해 오는 교사들의 동기와 배경은 각각 조금씩 다르나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승진과 근무지 이동에 필요한 점수를 따기 위해 1차로 본인이 희망해서 오는 경우이고, 또 한 부류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경험과 이 파도중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여기를 거쳐 간 교사들의 사례에 의하면 후자는 전체 도서지역 근무교사의 10%도 되지 않는다. 이 후자 측의 사정을 보면, 교과목 특성상 도서지역 근무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 지역 만기가 되어서 자리는 비어 있는데 도서지역으로의 이동을 원하는 교사가 없을 경우 새로 전입 해온 교사들을 배치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서지역에서 2, 3년은 근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승진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이렇듯 이곳에 근무하러 오는 교사들은 대다수가 승진이나 기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점수를 따기 위해 오게 되는데 이들

의 배경을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승진에 필요한 도서점수를 따기 위해 오는 경우이다. 전라남도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도서·벽지의 승진 가산점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벽지에 근무하지 않고 승진을 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교사들은 나름대로 승진에 관련된 점수를 계산하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해야 하는 시기와 근무할 곳을 정하거나 물색한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몇 년 후에야 도서·벽지 점수가 채워지는지에 대해 계산을 해보고 다음 근무지를 물색한다. 또한 도서·벽지 학교는 3년 이상의 연속 근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점수를 모두 획득하기 위해서는 육지지역 학교에 가서 근무하다가 다시 도서·벽지 학교로 와야 한다. 이때 다시 올 때는 학교이동을 위한 내신순위가 되어야 하며, 학교이동 내신 순위가 되어도 중, 고등학교의 경우 도서·벽지 학교에 자신의 과목 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이동하려는 같은 과목의 교사들끼리의 이동점수에서도 앞서야 되기 때문에 도서·벽지 학교에서 근무하려는 교사들은 자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한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21

이교사: 요즘 시내에 있는 학교는 대부분 초임이거나 여교사들, 그리고 승진을 포기한 나이 많은 교사들 뿐이다니까. 승진에 관심 있는 교사들은 전부 섬에 들어가 있거나 농촌 학교에 가 있다니까. 자기와 비슷한 나이의 교사들이 승진점수를 얻기 위해 섬이나 농촌에 가 있는 것을 보면 잠이 안 올 때도 있다고 말하는 교사도 있당께. 승진에 관심이 있는 교사가 시내에 들어갈 때는 섬 점수와 농어촌 점수를 다 따고 부장점수를 따야 시내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단니까. 요즘 40대는 거의 섬이나 농촌에 있다고 봐야 될거여.

(2003. 10. 16. 개별면담 중에서)

그래서 이동점수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몇 년씩 기다렸다가 이동점수에서 앞서면 올 수 있는데 그것도 도서지역에 자리가 비어야만 올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도서지역 학교에 와서 근무하는 것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음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2

김교사 : 나는 A지역에서 만기가 되어서 왔는데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도서지역에 와야 되는데 못 가면 어쩔까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 B지역에 지원하는 교사가 없어서 이렇게 바로 도서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당께. 안 그랬으면 3년은 더 기다려야 도서지역으로 왔을 것인데, 운이 좋은 편이랑께.

(2003. 3. 12. 교무실 참여관찰 중에서)

둘째, 근무성적평정(근평)5을 따기 위해서 오는 경우이다. 근무 평정은 교감 승진을 앞둔 교사들에게 필요한 점수인데 승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승진을 앞둔 교사들이 마지막으로 획득해야 하는 점수가 근무평정이다. 근무평정은 육지 지역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경쟁률이 높아서 교장이나 교감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교사 수가 적은 도서지역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도서 지역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다른 교사들이 그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근무평정을 얻기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 한 교사의 말에 의하면,

23

이교사 : 근평을 받으려면 근평을 맞을 사람이 어차피 와야 돼. 근평 받을 사람이 없는 데로 와야 된다고. 육지지역은 교사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교장에게 시달려야 되니까 힘들지. 그래도 섬에는 교사들 수가 적고 한번 와서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거든. 그래서 근평 받기가 용이하지.

(2003. 10. 16. 개별면담 중에서)

근무평정과 관련된 교사들의 승진 점수 관리를 보면, 교감 승진 점수에 가까이 있는 경력 많은 교사는 학교를 이동할 때 미리 경쟁 상대가 있는 학교를 피하고 경쟁 상대가 없는 학교를 골라서 지원하게 된다. 그래서 근무평정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누가 최고 점수를 받을 것인지를 미리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수긍한다고 말한다. 근무평정 점수 곧 ‘수’를 받을 교사와 그렇지 않을 교사들은 근무평정을 주는 교장(교감)과의 관계가

5)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2003년도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평정지침. 전라남도교육청).

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근무평정 점수에 신경 쓰지 않는 교사들은 교감⁶⁾에게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이외의 지시가 있으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근무교지역점⁷⁾을 따기 위해서오는 경우이다. 교사들은 교육하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학교는 교사들의 전보에서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근무교지역점에 의해서 학교가 배정된다. 근무교지역점은 지역과 학교 급지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도서·벽지지역이 일반 육지에 비하여 점수에서는 훨씬 높은 점수로 배정되어있어 유리하다. 그래서 도서지역에서 3년 정도 근무하면 거기에서 얻은 점수로 다음번에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도서지역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올 1학기 동안에 도서지역의 급지를 조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교육청에서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의 도서·벽지 학교가 급지를 하향해야 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교사들의 동요가 있었다. 특히 도서·벽지 점수가 높은 ‘가급’지나 ‘나’급지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어 도서·벽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큰 불만을 다음 사례에서 알 수 있다.

24

김교사 : ... 아 글썄, 가급지나 나급지가 없어져 버리면 인제 어찌라는 것인지 모르겠구마. 가급지로 가서 2년만 더 고생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4년은 더 고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맥이 풀려버리네.

차교사 : 나는 B지역의 급지 만기가 5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B지역에 있을 때 섬 점수를 다 딸려고 했더니만 틀려버렸구만. 육지지역 학교에서 3년 근무하다 가급지 섬에 가서 근무하면 딱 되겠다고 생각했더니 난감 하구만. 나이는 들어가 제,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일찍 섬에 올 것인데 그때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후회가 된다니까.

(2003. 10. 15. 교무실 참여관찰 중에서)

넷째, 경제적인 문제로 오는 경우이다. 이것은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나 아이들이 어리

6) 이곳 파도중학교는 본교가 아닌 분교이므로 실질적인 근무평정은 교감이 하게 됨.

7) 근무교지역점(8년을 합산) = 현임교 지역점 + 전임교 지역점. 현임교 또는 전임교 지역평정점은 ‘근무교지역점 배점표(월단위)’에 의거 산출한다. 현임교 근무기간 중 4년(48월)을 초과한 경력은 전임교 지역점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도서권역은 현임교 근무기간 중 3년(36월)을 초과한 경력에 대하여 전임교 지역점을 적용한다.(2003학년도 전라남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전라남도교육청).

고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나중을 대비해서 일찍 도서 점수도 따 놓을 겸해서 섬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교사들이 도서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와 그것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것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혹은 보dana은 근무지 이동을 위함이다. 다음 교사의 푸념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5

연구자 : 승진점수가 없다 해도 도서지역 근무를 희망하시겠습니까?

박교사 : 어~이 미쳤는가? 내가 자식새끼, 마누라 놔두고 이게 무슨 꼴인가? 밥을 제대로 해 먹기를 하나, 잠자리가 편안하기를 하나, 그렇다고 문화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건강 관리하는 체육관이 있기를 하나. 관사는 습기가 차서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나오지, 가끔씩 지네에 물려서 몸이 통통 부어서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아보소정이 뚝뚝 떨어진당깨(한숨). **워낙 승진점수에서 차지하는 것이 많으니 오는 것이지 ... 솔직히 그렇지 않은가? 섬 점수 없으면 내가 뭐 하러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하겠는가. 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승진은 포기해야 되는 실정이니. 참 이 나이 들어서 애로사항이 많네.**

최교사 : ... 그놈의 승진이 무엇인지. 요로코롬 젊은 청춘을 여기 와서 썩혀야 허니 나 원 참. 그래도 친구들보다는 내가 먼저 섬 생활을 하니까 그 친구들 섬 생활 할 때는 나도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이고 승진에서 앞설 것이다 하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진즉 병이 났을 것이네요. 앞으로 승진을 할지 아니면 승진규정이 바뀌어서 못할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취득해 논 점수는 해보야지 그래도 내가 낙오는 안 되었구나 하고 생각이 된다니까요.

(2003. 6. 24. 집단면담 중에서)

도서·벽지 학교에 오는 동기가 이러하므로 교사들은 이곳에 와서도 승진과 관련된 연수나 자격증 취득, 그리고 연구점수 등에 관심이 많다. 정보에 관한 자격증이 승진 점수에 반영되면서 대다수의 교사들이 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며, 갖추지 못한 교사들은 많은 시간을 워드자격증을 따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좀 더 컴퓨터에 능력이 되는 교사들은 교원정보활용능력 인증제에 관심을 갖는다. 교원정보활용능력 인증제는 올해부터 일년에 1회로 평가 횟수가 줄어들어서 교원들 간에는 응시 기회 의 축소가 그나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더 떨어트린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교원정보활용능력 인증제는 문서작성, 프리젠테이션, 인터넷, 전자계산표, 자료개발,

홈페이지의 6개 과목으로 되어있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인증제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그 인증제를 더욱 획득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연수는 매년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교사들 대부분은 컴퓨터를 통한 원격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가 원격연수를 신청하면 다른 교사들도 이에 자극을 받아 원격연수를 신청해서 함께 연수를 받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서로 물어보면서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컴퓨터 사용에 서툰 교사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연수를 받는다.

교사들은 위와 같이 이곳 도서지역으로 와서도 승진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지만 실제 생활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편하다. 그래서 교사들은 가급적 도서지역에서도 덜 힘든 곳에서 근무하고 빨리 이 지역에서 벗어나 육지의 보다 나은 곳으로 갈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3. 교사의 적응전략과 원리

교사들의 일상적인 교직활동은 상대적인 범주 활동을 벗어나 교육학자나 교육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원리와는 다른 종류의 원리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이론적인 원리를 따르기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어(이인호, 1990), 교사들은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며 생활한다. 특히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지역의 특성 상 그런 현실적인 조건과 제약이 다른 곳에서보다 더 원초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교육 법규,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의 지시, 학부모의 요구, 학교장의 운영 지침, 학생의 수준 및 태도 등의 현실적인 조건에 적응하면서 자신들의 갈등을 조절해 가는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세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적응전략과 원리는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으로 오늘을 참아내는 그들만의 생활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인간관계에서 먼저 교사들의 동료관계를 보면, 교사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어느 곳에서 근무할 때보다도 더 가족처럼 가깝게 지낸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육지지역과 달리 활동 범위가 좁고 만나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때로는 사소한 일들로 서로 신경을 써야하는

불편함도 종종 나타나기는 하지만 교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마주하면서 지내므로 얼굴표정만 봐도 지금 어떤 기분인지 금방 알아챈다고 한다. 그러므로 매일 서로에게 조심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운 말들을 삼가고 즐겁고 좋은 화제를 내놓기 위해 애쓰고 배려한다고 한다. 가족같이 생활하면서 동료애를 느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며 사는 모습을 다음 사례에서 볼 수 있다.

#26

전교사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도와주면서 서로 위로해 주는 인간적인 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기름이 부족하면 빌려준다든지, 2주간 생활하면서 반찬이 부족한 경우 서로 나눠먹는다든지 ... 또 뱃머리에 나와서 배웅해 주고 차로 태워오는 등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많으므로 모든 교사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보기 좋아요. 나도 섬에 와서 원격연수도 신청하고 인증시험도 나름대로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격했거든요. 또 행사가 있을 때 수가 적으므로 모든 교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단결이 잘된다는 장점도 있지요.

(2003. 8. 21. 개별면담 중에서)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보면, 교사들은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생활을 하고 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러 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학부모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두리 양식장이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에 보내고 있어 학교의 운영이나 자녀들의 학업지도는 오로지 교사들에게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의 행사가 있을 때나 태풍주의보가 붙어서 일찍 학생들을 귀가시킬 때에만 학교에서 학부모 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학교사정을 알려주고 있다. 교사들은 이곳 학부모들이 매년 여름에는 바닷물의 적조와 태풍으로 그리고 겨울에는 냉 수온으로 양식장에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중국에서 수입해 온 활어 때문에 가격에서도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어 힘들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올해는 태풍 ‘매미’가 강타하여 대부분의 양식장을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려서 학부모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교사들은 이렇듯 이들의 가정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기에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위로해 주고 도와주면서 마을과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의 애경사가 있으면 같이 찾아가 마을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마을 사람들을 의

식하면서 생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고 토로한다.

27

전교사 : 시내에서는 우리가 누구 학생들 부모 돌아가셔도 내 반이 아니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마을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내가 당사자도 아니고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학부모도 아니고 주민이여 그렇지만, 또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안 있는가? 시내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통로에서도 생각도 못할 일도 여기서는 얼굴을 안 비치면 서운해질 생각을 가져버릴 그런 사람들이 안 있는가?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도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하니 힘들기도 하지.

(2003. 11. 6. 교내 참여관찰 중에서)

학부모들에게 종전의 교사들은 오직 승진에 목적을 두고 와서 학생들의 교육에는 소홀히 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간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생활을 하고 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러 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도 넓게 보면 교사들이 이곳에서의 교직생활을 영위하는 나름대로의 적응방식이라 할 것이다.

둘째, 내일을 향한 희망과 현실제약에 대한 체념에서 이들의 적응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교사들은 도서지역 근무를 희망하고 올 때 이곳 생활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온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막상 실제 생활에 부딪치면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므로 될 수 있으면 빨리 섬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래도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하므로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적응해가는 전략중의 하나가 바로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도서지역 학교의 생활을 군대생활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젊은이들이 군대에 갔다 와야 하는 것처럼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섬 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정의한다. 군인들이 정해진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제대하기만을 기다리듯이 교직생활에서 도서지역 생활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지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면담사례를 보면,

28

양교사: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은 **교직에서의 군대생활**이여.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듯이 교육부 시계도 돌아가니까 기다리다보면 제대 날짜가 다가온다니까. 정말 섬 지역은

몸으로 때우는 것까지 군대와 똑같다니까. 그래도 참고 생활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몸 성히 잘 지내야 될텐데…….

(2003. 5. 29. 교무실 참여관찰 중에서)

도서지역 근무 교사들의 이러한 섬생활에 대한 ‘교직생활에서의 군대생활’ 비유는 우리들에게 이들이 현실적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해 가는지에 대한 이해의 지평선을 조금 더 넓혀 준다고 하겠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서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의 삶과 문화, 교직활동, 그리고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를 그들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도서지역 교사들의 보다 나은 교육활동과 교육여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공동연구자가 전라남도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약 10개월 동안의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고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 12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문제 1> 도서지역 교사들의 교직 생활은 어떠한가? 를 알아본 결과,

첫째, 교사의 하루생활은 다른 일반 육지지역의 생활과 크게 다른바가 없었다. 다만 도서지역의 특성상 출근을 좀 빨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교사들이 생활하는 관사나 자취방에는 컴퓨터나 신문 등 일반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오후 퇴근 시간과 근무 공간이 때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었다.

둘째, 교사들의 교실 안 이야기에서는 본인 전공 이외의 다른 과목들을 두, 세 개 맡는데서 오는 수업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시험문제 출제의 어려움, 교재나 참고서들을 쉽게 구하기 어렵다는 점, 노력과 기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의 낮은 학습의욕과 과제 불이행으로 인한 수행평가의 어려움,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등이 교사들의 이야기 주제거리였다. 본인 전공 이외의 다른 과목을 두, 세 개 맡는데서 오는 고충이나

학생들의 낮은 학습의욕과 태도로 인한 수업의 질 논란 등은 유재정(1992)의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을 뒷받침해 주고 있듯이 이곳 도서·벽지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3학급이하 일반 중, 고등의 소규모 학교의 교직생활에도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실 밖 이야기는 먼저, 업무 이외의 생활로 섬 생활의 정서가 담겨있는 친목회 활동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퇴근 후의 생활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경우 자신들의 취미에 따라 신앙생활, 인터넷 바둑 두기, 난 가꾸기, 달리기, 산책, 낚시, 술마시기 등을 하며 주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섬 생활을 낯설어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었고 부식가게나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나 기본적인 문화시설이 전무한데서 느끼는 불편함과 답답함을 이야기하며 자녀들에 대한 건강과 교육문제가 그 주를 이루었고, 날씨와 연결된 생활에서는 교사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집에 다녀오는 것이 주관심사이고 낙인 관계로 일기예보에 민감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생활 양상은 도서지역 학교가 지닌 특성들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넷째, 도서지역의 특성에서 교사들의 일상생활에서 갖는 갈등과 제약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교사-학생의 관계에서는 학생들의 낮은 학습의욕과 학생들의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현실여건 그리고 부모의 교육적 지원의 미비 등으로 곁도는 듯한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도서지역 학교의 수업현장을 미시적으로 관찰해서 얻은 결론이 아니고 교사들과의 면담분석을 통한 연구자의 해석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 갈등요인으로 자녀의 교육문제 고민과 가족 및 사회적 인간관계의 소원함을 들 수 있었다. 도서지역에 오는 교사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교사들인 관계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함으로써 자녀의 바른 성장과 교육적 지원의 문제와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친구 등의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표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적응해 가야할 것으로 보였다. 세 번째는 주거 및 문화시설의 미비로 겪는 어려움이었는데 교사들은 섬은 '감옥'이라는 표현을 하며 관사시설의 노후화로 누수, 곰팡이, 각종 벌레출현 등의 기본적인 주거시설의 불편함,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부식조달, 식수 등에서의 겪는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의 행복과 학생의 행복과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학생들의 교육 형성평 차원에서도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다음 <연구문제 2> 교사들의 도서지역 근무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들의 적응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도서지역 근무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것은 승진과 다음의 근무지 이동에 필요한 도서벽지 학교 가산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대다수가 승진을 위한 도서지역 점수와 근평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며 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도서지역에로의 우수교사 흡인요인으로 승진이나 전보 시에 가산점을 주는 교육청의 인사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 학교가 단지 승진을 위해 거쳐 가는 곳이 아닌, 승진을 지향하는 교사들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일반교사들도 근무하고 싶어 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교육지원정책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교사의 적응전략과 원리로 동료관계에서는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며 동병상련에서 오는 보다 더 친밀한 동료애를 발휘하려는 노력들을 들 수 있었고,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원만한 생활을 하고 이 지역에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러 왔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과 현실제약에 대한 체념에서 이들은 교직생활을 군대생활에 비유하여 섬 생활을 정의하고 받아들이며 적응해 가고 있었다.

본 연구의 도서지역 교사들의 교직생활에서 나타난 섬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본인의 승진을 위해서는 마땅히 감수하고 겪어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교직생활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교사의 사명을 다 하고자 성실하게 노력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의 노고가 오늘의 도서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기예보에 민감한 생활을 하는 교사들에게 날씨와 같은 자연현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관사의 보수나 건강생활과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는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이

들의 교직생활에서 나타나는 삶의 애환에 대한 무게를 덜어 주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그 혜택이 결국 도서지역 학생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교사들의 생활안정은 곧 교육의 질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교육법전편찬회(2003). 교육법전. 서울: 교학사.
- 김영찬(1995). 학교문화의 개념과 연구과제. 교육이론, 9(1): 1-10.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 김영천(2002). 네 학교 이야기. 서울: 문음사.
- 김영철(1999). 질적연구에 있어서의 글쓰기, 교육인류학연구. 2(2). 71-93.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 김풍삼(1992) 한국 교원문화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복(1992). 학부모 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나재주(1999). 교사의 생활세계와 교사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춘연(1992). 현행도서벽지교육진흥책과 도서벽지교사의 직무수행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수옥(1991). 재수생들의 생활과 배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지희(2001). 중등교사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경우(1995). 농촌지역 국민학교 교직문화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옥순 “역”(1991). 교육연구의 새 접근: 질적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윤철수(2003). 도서지역 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자(2001).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직문화의 특질.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용숙(1989). 문화기술적 수업 연구 방법. 한국교육 제10권 제1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용숙, 김영천(1998). 교육에서의 질적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이용숙(1992). 한국 중등학교 문화의 특성. 청소년 연구, 3(2). 서울: 한국 청소년 연구원.
- 이용식(1969). 도서 소재 학교의 향토 학교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환(1993). 도서벽지 교사의 사기저해요인 요인별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인호(1990). 인문계 고등학교 교직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인호(1995).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구상(Ⅲ) - 교사와 교직풍토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정선(1998). 열린 초등학교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용숙·김영천 편, 교육에서의 질적

- 연구(pp321-356). 서울: 교육과학사.
- 유재정(1992).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현실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여각(1999). 교육인류학에서의 문화연구. *교육인류학연구*, 2(1): 63-89.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 전남교육통계연보(2002). 전남지역 도서학교현황. 전라남도 교육청.
- 조용환(1995). 학교 구성원의 삶과 문화: 교사와 학생, 그들은 행복한가? *교육학연구*, 33(4): 77-91. 서울: 한국교육학회.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상근(1992). 한국 초·중등 교사의 교직사회화 과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용성(2003). 여수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직문화 연구.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2000). 교육통계연보.
- 홍재호(1999). 학교문화 연구의 경향 분석. *교육연구*, 제15집: 1-24.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 홍용희(1998).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8: 113-129.
- 홍영기(2001). 학교문화의 형성과 작용과정. *교육인류학연구*, 4(2): 41-58.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 황기우(1992). 한국 초등학교의 교사문화에 관한 해석적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ogdan, R. C., & Biklen, S. K. (199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2nd ed.). Boston : Allyn & Bacon.
- Carson, T. R.(1995). *Reflective practice and a reconceptualization of teacher education*. 허숙, 윤희령 “편”(1997). *교육현상의 재개념과-현상학, 해석학, 탈현대주의적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Deutscher, I(1970). Words and deeds: social science and social policy. W. Filstead(Ed.). *Qualitative methodology*. Rand McNalley.
- Geerts;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 문옥표 “역”(1998).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 Hargreaves, A.(1998). *Changing teachers, changing times - teachers' work and culture in the postmodern age*. London: Cassell.
- Lortie, D. C.(1975). *Schoolteacher- A Sociological stud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진동섭 “역”(1993). *교직사회-교직과 교사의 삶*. 서울: 양서원.
- Metz, M. H.(1990). "How social class differences shape teacher's Work". *The context of teaching in secondary schools: teacher's reality*. New York: Teacher's College.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이희봉 "역"(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Stainback, S., & Stainback, W. (1988). *Understanding &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virginia: The Council for Exception Children; 김병하 "역". 질적연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van Manen(1986). *The tone of teaching*. Richmond Hill, ON., Canada: Scholarstic-TAB.
- van Manen(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신경림 · 안규남 "역"(1990),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 방법론. 서울: 동녘
- Wood P.(1983). *Sociology and the school - An interactionist viewpoint*. London: RKP. 손직수 "역"(1988). 학교사회학-상호작용론적 견해. 서울: 원미사.

논문접수: 2004년 11월 20일 / 2004년 12월 14일 / 2005년 1월 17일

· 이순자: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 유아교육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여수대학교 교육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저서로는 ‘유아를 위한 환경 보전교육 활동중심 프로그램’(공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직원문화의 특질’ 등이 있다.

e-mail: jelmana@yosu.ac.kr

김종봉 약력: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광양태금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임.

The Ethnographic Case Study of Teacher's Professional Lives in a Middle School in the Remote Islands

Lee, Soon-Ja⁸⁾

Kim, Jong-Bong⁹⁾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living, culture, teaching activities, and everyday experiences of middle school teachers who are working in islands areas and understand them from their point of view. To achieve this goal, the relevant data were collected by selecting a middle school from an island located in Jeollanamdo for observation and then analyzed. The co-researchers conducted participant observation there for about 10 months and performed in-depth interviews with twelve teachers who work there.

As a result, the teachers spoke out the difficulties related to classes and duties that they had to teach two or three more subjects except their major, confront the students less keen on learning and submitting assignments in spite of their efforts and expectations and the parents providing insufficient support for education. It was found that the teachers felt loneliness due to separation from their family and went through discomfort and difficulties resulting from outworn official residences provided by schools and lack of facilities for physical training and cultural activities.

The troubles and restrictions they are faced with are as follows: first, unfamiliar teacher-student relationship. second, estrangement from family and the society. and third, the difficulties resulting from insufficient residential and cultural facilities.

It was indicated that the main reason they work in schools located in islands was scores necessary for promotion or transfer. That is, most of them chose the living on islands mainly in order to get extra scores. Additionally, their strategies for adapting themselves to the island life were to keep close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and students' parents, accept the reality by comparing it to 'military service', and to have hope for tomorrows.

Key words: in island areas, middle school teachers, teacher's professional life

8) *Yosu National University*

9) *Taekum middle school*